

‘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교육’프로그램의 개발

이 유 신(충남대 국제경영학과 4학년)

박 미 려(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강사)

이성교제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과 여성의 사회진출,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중심의 생활 형태가 개인중심의 생활 형태로 변화하는 등 개개인의 접촉이 쉬워지고 남녀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하였다.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정략결혼이 유행이었으나, 해방이후 서구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차 이성교제의 자유를 허락하게 되었으며,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결혼 전 이성교제를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. 이에 따라 젊은 층에서의 이성교제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데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.

이성교제는 결혼 전 경험의 통합적 부분으로써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발달, 배우자의 선택과정뿐만 아니라 결혼 후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부부관계발달의 방향과 형태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(김용미 · 서선희 · 옥경희 · 정혜정, 2009; 정현숙, 2005; 이재림 · 옥선화 · 이경희, 2002; 오윤자, 2001; Stahmann · Salts, 1993). 결혼 전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이성교제는 이성 간 친밀감 증진 및 의사소통 기술향상, 관계에 대한 책임감 발달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서적 감성만으로 상대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성적 판단의 혼란, 성적 호감 및 충동에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, 이성교제 및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신화,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책임감의 결여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. 이에 따라 이성교제의 건강한 의미와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획득을 위해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.

본 연구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한 만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‘예방과학의 원리’에 기초하여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녀 차이에 대한 적응 능력의 향상, 이성에 대한 친밀감 향상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, 이성교제 시 발생가능한 한 문제의 실질적인 대처방법 및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따라서 본 연구의 ‘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한 교육’프로그램은 각 회기 당 60분 씩 총 4회기이며, 이성교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, 부정적인 측면의 위험을 감소 및 예방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. 1회기는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자신이 어떠한 사랑의 유형 및 애착유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. 2회기는 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바르게 잡고, 성에 대한 신화 및 남녀 간 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 및 콤플렉스에 대한 토론을 한다. 3회기에는 이성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시한 후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 4회기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기술교육으로 남녀 간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해 학습하고 갈등의 해결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.

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이성교제에서의 자신과 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은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요인들에는 현명하게 대처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장래의 배우자선택 과정과 긍정적인 부부관계 유지에 보탬이 되는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